

I. 대내비전 : 회원이 행복한 한국심리학회 만들기

1. 국가 및 국제자격증 취득 기회 제공

현재 우리와 유사한 일을 하는 (정신건강)의사, 사회복지, 간호, 청소년학과 관련한 전공자들의 경우, 그들의 전문적 활동에 근거가 되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여러 활동에 심리학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리학자로서 전문적 활동을 하는데 근거가 되는 법 제정을 지원하고, 국내외적으로 신뢰할만한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여 심리학자로서 더 인정받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자 합니다.

- (가칭)심리서비스법 추진: 법 제정을 위한 연구 및 지원
- 회원들의 국제자격증 취득 기회 제공: 국제 중독자격증(Colombo Plan) 등

2. 회원들의 취업관련 기회 확대

심리학 전공자들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관 국가부처 및 기업의 중장기 정책을 잘 파악하고 국가정책에 맞게 회원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연구, 교육 및 수련 등의 체계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각 분과학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각 국가 부처와 기업에 심리학자의 존재와 역량을 알리는 창구 역할도 수행하여 심리학회 회원들이 국가공공기관, 기업 및 기타의 장면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다음과 같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자 합니다.

- 국가 및 기업정책에 따라 심리학 전공자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파악 및 관련기관에 심리학 전공자의 필요성과 역량 홍보
- 국가 및 기업정책에 따라 회원들이 준비해야 하는 내용 및 방향성에 따른 교육과 수련방법 등 개선
- 심리학 전공자의 취업기회 확대 방안 마련
- 기업 및 기타 활동영역 개발 등

3. 회원들의 학회 참여와 관련된 재정지출 축소 노력

그동안 모학회와 분과학회 학술대회 참여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대부분의 회원들에게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회 회원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심리학 전공 후속세대들의 학회 참여를 독려하고자 다음과 같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자 합니다.

- 연차학술대회 참가인원 증대 및 참가비 인하 방안 강구
- 분과학회 학술대회비 중 심리학 전공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지원금 조정을 통한 지원 등

4. 회원들의 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우수한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은 연구자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심리학자들의 최대 강점입니다. 이러한 강점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자 합니다.

- 연구방법이나 측정 및 평가 등을 강조하는 기초심리 분야 분과학회의 우수 교육 및 학술 서비스를 심리학회 전체 회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K-무크 등 지식공유 플랫폼과 연계하여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회원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한국심리학회지: 일반」에 주요 심리학 연구방법 및 측정에 대한 최신 지견을 소개하는 섹션과 스페셜 이슈 코너를 신설함으로써 모든 심리학회 회원들이 최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5. 모학회와 분과학회 간의 협업 기능 강화

현재 한국심리학회 산하 분과학회는 15개나 됩니다. 한국심리학회 발전을 위해서는 각 분과학회의 요구를 수렴하고 조정하여 각 분과학회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업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각 분과 회원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자 합니다.

- 분과학회 간 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 각 유사/동일 기능별로(예. 홍보, 대외, 윤리 등) 모학회와 분과학회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공동 사안(예. 심리학의 사회적 공헌, 심리서비스법제화 등)에 대한 협업을 통하여 대정부 또는 대국민 활동의 일관성과 통일성 유지하고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연구과제 단위의 분과학회 연합체를 운영하여 여러 분과학회의 협업이 필요한 연구 과제(예. 뇌 인지 및 뇌 생물, 국민대상 심리서비스제공 등)를 발굴하여 해당 연구 과제에 대한 공동 기획 및 추진 등

6. 한국심리학회 회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 강화

현재 한국심리학회는 학술단체로서의 역할과 회원권익을 보호하는 협회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회원 수가 급증함에 따라 회원들의 권익보호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자 합니다.

- 한국심리학회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 모색
- 한국심리사협회의 의견 반영 및 지원 강화
- 심리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견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

7. 기타 한국심리학회 대내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사업 등

II. 대외비전: 심리학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한국심리학회 만들기

1. 사회기여활동 강화 및 홍보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심리학자의 역할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심리학회 회원 및 심리전공자들이 사회적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심리학자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자 합니다.

-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는 주요 이슈(예. 자살, 트라우마, 성폭력, 재난, 분노조절, 청소년 폭력 및 왕따, 중독, 고령자 치매, 소상공인 및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취준생의 스트레스, 중독 등)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한국심리학회 차원의 연구 및 해결 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홍보하는 활동 강화 및 홍보 등

2. 국민이 양질의 전문적 심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현재 우리나라에는 상담을 할 수 있는 민간 자격증이 4000 여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양질의 심리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한국심리학회 또한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자 합니다.

- 국민들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등

3. 한국심리학회-국민 간의 소통 강화

현재 심리학자들이 국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한국심리학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과 국민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자 합니다.

- 분야별 심리학자들로 구성된 대국민 자문단을 구성하여 페이스북 및 Q&A 게시판 등에 활발하게 질의 응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대중에게 심리학 지식을 알리기 위하여 발간하고 있는 웹진의 콘텐츠 및 특성을 재정립하여 쉽고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 제공 등

4. 외부 기관이나 인력들과의 연계 및 협업 강화

한국심리학회가 더 발전하고 대외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외부 기관이나 인력들을 적극 발굴하고 소통을 통한 전문역량 강화 및 연계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자 합니다.

- 모학회 및 분과학회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외부 기관이나 인력풀을 구성하고 이들과의 연계, 자문 및 소통 강화
- 외부기관이나 인력들과의 연계활동을 통한 융합적인 사업 시행 등

5. 기타 한국심리학회 대외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사업 등

2018. 8. 17

(사)한국심리학회 제49대 운영위원회

(사)한국심리학회 제49대 회장 조현섭